

공공조직의 부패연결망 형성 및 확산요인 발견*

– DEMATEL법을 활용한 전문가 평가를 중심으로 –

Finding the Factors to Generate and Expand Corruption Networks in Bureaucratic Organizations

- Focused on Expert Group Evaluations Using DEMATEL Method -

임성범(Lim, Seong Bum)**·김경태(Kim, Kyung Tae)***

ABSTRACT

Recent studies have been shown that bureaucratic corruption in Republic of Korea is organized and structured. In other words, it is a form of 'systemic corruption'. It has a tendency to generate and expand its power within organizations or society through myriad informal network. Within a organization/social system, they cement each other and expand and contract over time. That is, it serve as critical mechanisms itself to operate bureaucratic corruption systemized.

However, ver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factors that produce and enlarge the corruption network. Much previous research has focused on controlling corruption such as approaching methods and strategies. We have to understand the nature of problem rather than find bureaucratic corruption controlling mechanism because the corruption network operates with very complex factors to generate and expand in organizations. In this paper, I will rely on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based on the integrated model of structure-behavior to analyse the nature of corruption network.

Seen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test theories of bureaucratic corruption generation and corruption networks using DEMATEL method. The expert members participat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critical factors to corruption networks.

Key words: Corruption network, Systemic corruption, Informal network, Interdisciplinary approach, DEMATEL

* 평가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국가 사정기관 및 공무원분들과 데이터수집 및 자료배부에 수고해 주신 국회의장실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 건설적 제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연구전임 조교수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I. 문제제기

한국은 2012년 보고된 TI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보고서에서 부패지수 100점 만점에 56점(Confidence Interval 52~60)을 받아 174개국중 45위(Surveys used 10)에 랭크되었으며, 2013년에는 55점(Confidence Interval 51~59)을 받아 175개국중 46위(Surveys used 10)에 랭크되어 개선의 정도가 사실상 거의 정체수준이다.

이러한 국가의 부패지수 상승과 청렴도 지수의 하락은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 실추뿐 아니라 지금처럼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외신뢰도 하락과 외부로부터 투자의 거래통로 및 자원/산업 인프라 확보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국정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국가의 행정개혁과 경제개혁 그리고 사회질서 개선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3.0을 통한 행정개혁을 조직 내·외적 측면에서 볼 때, 부패의 개입과 확산은 조직내부의 운용시스템 개선 미비로 행정 혁신을 위한 비용절감이 어려우며, 조직 외부에 대해서는 신뢰에 기반한 개혁이 어려우므로 정책집행의 정당성과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위한 정치적 지지확보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또한 공공조직 구성원의 부패 문제는 조직 내에서 안정적 업무 추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사회전반에 강도 높은 사정작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패통제의 접근에 있어서 부패문제를 특정 요소(법·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거나 정권초기의 개혁의지 표명수단 혹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선전용으로 사용하는 등 일시적인 척결의지를 주장하는 ‘일회성 행사’가 되어서는 부패를 영구히 추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즉,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여 조직에 적용시키고, 한국의 부패특성인 체제적 부패를 타파하기 위한 연결고리 단절에 그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¹⁾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은 지금의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역대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부분이다. 그러나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부패가 체제화(systemized) 될 경우 통제전략의 개발/적용뿐 아니라 통제논리의 개발 역시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다(하태권 외, 1999; 윤태범, 1999; 전수일, 2001; Stefes, 2007; Cartier-Bresson, 1997). 지금까지 부패학 분야의 많은 연구들이 부패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부패문제 자체의 발생과 영향력관계에 대한 접근이 미약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이 분야의 시간적 연구경향에 비추어 볼 때, 1960년대까지는 주로 기능주의적 접근이 강했으며, 70년대 이후

1) 한국형 관료부패에 대해서는 ‘체제적 부패(Systemic corruption)’라는 특성으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김준호, 1991; 김해동, 1991; 최병선, 1994; 오석홍, 1998; 박영호, 1999; 최상일, 2000). 이러한 체제적 부패는 행정조직 내에서 부패행위와 현상을 조장하고 구성원으로 하여금 부패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드는 등 부패한 문화가 만연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문화에서는 외부 부패행위자(증뢰자)의 유입이 쉬우며, 내부 부패행위자(증뢰자)의 부패행위를 통한 연계가 쉽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부터 후기기능주의적 접근이 강했기 때문이다(강정석, 2000: 39-40). 이러한 관점은 공공부문 부패통제 연구에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여 통제전략제시를 특정기준 즉, 문화·윤리·법·제도등 단일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부패문제(특히 민간과 연계된 비위유형)는 그 발생자체가 단일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특히,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체제화된 거래형 부패는 다양하고 복잡한 배경과 인과관계의 결합으로 생겨나므로 통제전략 역시 부패문제를 사회현상의 단일 부산물로 인식하기보다 그것 자체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출현적 속성(Emergent Property)’에 기인하여 해석하고 (통제)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²⁾ 그러나 통제전략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이 형태의 부패는 불확실성 하에서 개체들 간의 상호작용과 조직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계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는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으므로 문제의 이해와 해석 역시 단선적 접근이 아닌 복합적 관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패네트워크의 형성배경과 확산에 대하여 행위자들의 관계적 속성(Simple Network)에 대한 접근과 관계적 속성의 총화로 나타나는 전체 연결망 체계의 형태(Complex Network)를 규정하고 이해하는 문제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결망 이론을 기반으로 미시단위의 행위와 거시단위의 구조화를 해석한다. 이 과정에서 힘의 역학관계와 방향 등이 고려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부패연결망의 형성과 확산에 대한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기능을 추출할 수 있다. 이처럼 현상에 대한 스펙트럼의 변화 트렌드는 최근 들어 미시적 움직임(관계)과 거시적 결과(구조)의 통합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Ritzer, 2006:607-612).

여기서는 구조-행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유도된 연구모형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한다. 경험적 연구를 통해 부패시스템 내부의 개인·집단·조직수준 핵심요인들의 상호 내향종속성을 통한 영향력 관계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지도(impact relation map) 상에서 복합적으로 해석한다. 이를 위해 부패연결망의 형성과 확산 메커니즘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DEMATEL(Decision Making Trial and Evaluation Laboratory)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유도하고, 부패연결망의 형성 및 확산요인 발견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지향한다.

2) Durkheim(1938:xliv)에 따르면 서로 상이한 성질을 지닌 구리와 주석의 합금을 통해 청동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때 청동의 견고함은 구리와 주석이 지닌 본연의 속성인 유연성에서 발견할 수 없는 즉, 관계성으로부터 연유하는 ‘출현적 속성(Emergent Property)’이라 주장한다.

II. 모형의 제시

1. 선행연구의 검토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부패문제를 연결망 개념을 적용하여 접근한 연구들은 간혹 있었다(윤태범, 1993; 하태권 외, 1999; 백완기 외, 2000; 전수일, 2001; 최윤경, 2001; 임성범·강제상, 2009; Nielsen, 2003; Cheloukhine & King, 2007; Dobovsek, 2004). 먼저, 윤태범(1993)의 연구는 관료부패 연구에 있어서 부패문제 본질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는 많은 연구가 관료부패를 결과로만 취급함으로써 분석방법과 방향이 편향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의 연구는 관료부패 현상에 대한 구조분석이 필요하며, 연결망에 대한 개념이 이에 대해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았다.

하태권 외(1999)는 네트워크 이론이 부패문제 발견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다양한 사례(한보사건, 수서사건, 안경사협회 로비사건,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건 등)를 통해 관료부패 연구에 연결망 모형의 적합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분석을 토대로 공직부패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백완기 외(2000)는 연결망 모형을 구성하여 사례를 해석하는 방법을 지향하였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분야(건설·건축·세무·환경, 위생, 교통·경찰)를 사례별로 분석하고 부패연결망 내에서 집단압력과 역동성이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최윤경(2001)은 연결망 모형을 사용하여 권력형 부패연결망의 한 사례인 ‘한보사건’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대상이 되는 ‘한보철강’을 중심으로 정치권, 금융권, 관료권이 상호연계와 압력을 행사하는 부패연결망 구조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패연결망의 구조가 어느 하나의 단일 변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도화되고 구조화된 부패로서의 성격을 갖기에 사회전체의 구조적 메커니즘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을 주장하였다.

연결망의 특수성에 대해 다른 이론체계를 통해 고찰한 연구들이 있다. 그 중 임성범·강제상(2009)의 연구는 사회 구조와 행위이론을 바탕으로 미시단위에서 개체의 부패의지가 형성되고, 이것이 거시단위의 구조화를 거치면서 보다 구체화·구조화되어가는 과정을 구조와 행위의 통합모델로 설명하고, 통제전략을 도출하였다. 통제전략의 가중 값 설정은 ANP (Analytic Network Process)방식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외국에서도 최근들어 부패 연결망에 대한 연구와 접근이 빈번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 중 의미 있는 연구는 Nielsen(2003)의 연구와 Cheloukhine 와 King(2007), 그리고 Dobovsek (2004)의 연구로 볼 수 있다. Nielsen(2003)의 연구에서는 부패를 독립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체제적이고 침투적인 하위 시스템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확산의 특징을 연결망의 특수성에서 찾았다. 특히, 부패영역과 그 하위 영역 간에 어떠한 작용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12개 요소를 제시하고, 네트워크, 사회변동, 그리고 행동연구 이론으로부터 6개의 처방적 이

론을 구조화하였다. 그의 연구는 부패문제를 연결망의 특성으로 접근하고 부분의 총합이 전체를 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정치-경제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전개하였기에 문제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찾거나 변수를 구조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Cheloukhine 와 King(2007)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부패연결망 연구에서 급속한 개혁과 변혁기(transitional period)를 지난 국가들의 경우, 진정한 의미의 후생손실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급속한 변혁기에서 법과 제도의 변화에 대해 경제 시스템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Dobovsek(2004)은 Slovenia를 대상으로 이 나라에 만연한 부패연결망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는 부패연계에 있어서 비정형적 연결망(informal network)가 매우 중요하게 기능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Slovenia라는 국가의 사회적 특수성과 맞물려 부패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보았다. 더욱이 비정형적 연결망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제도적 통제장치도 그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나라의 경우 국제공조 역시 부패확산에 중요하게 기여하는데 경제적 요건을 우선순위에 뒀으로써 외부 경제주체들에게 부패와 규제에 관용을 베풀고 이것이 다시 부패를 조장하는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연결망 분석의 방법론적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연결망의 특성에 접목시켜 그 관계를 기술적(descriptive)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지향하고 있으며, 메커니즘의 발견을 이론으로 연결하는 즉, '이론의 생산'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실제 이 연구에서 도입하여 적용하는 네트워크 이론의 유연성이 높기 때문이며, 이 분야의 실증적 데이터 구축과 연구방법 그리고 선행연구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의 문제 또는 현상의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노력은 이론이 보다 견고화되고 진보할 수 있는 배경이기에 필히 고려되어야 한다.

2. 공공조직 부패발생배경과 행위자 연계의 형성

최근들어 연결망 이론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부패학 분야에서도 이 이론의 적용을 통해 부패학 이론을 세련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특히 이론적용의 궁극적 목적인 부패연결망 형성과 확산요인 발견에서 부패발생 문제를 부분적인 배경으로 부터 전체적인 확산의 과정으로 인식하게 함은 이론적용의 가장 큰 효과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조화 과정을 통해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핵심요인간의 영향력 관계와 정도를 평가하는 노력은 구조와 행위의 유연한 해석 및 적용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공공조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배경 하에서 부패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고 이들이 연계와 확산의 가능성을 지니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부문에서 부패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의 부패 매개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특히 민간과 연계된 거래형 부패에서 연결망 형성과 확산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매개자는 그 존재유무와 함께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와 성격, 그리고 연결망의 존속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임성범, 2014). 또한, 부패 유발자, 포섭대상자, 부패가담자, 지대(정보, 자원, 이권) 역시 연결망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다(Aldrich & Whetten, 1981; Easton & Hakansson, 1996).

이러한 특성은 공공조직의 분권화와도 깊이 연관되는데 중앙집권형 조직 구조에서는 분권화 상태에 비해 구조적인 측면에서 수직적 부패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직적 구조의 특성이 부패행위 노출에 대한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 행위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Shleifer 와 Vishny(1993)는 이러한 상황에서 허가증과 같은 보완적 정부재의 (뇌물비용을 포함한)가격을 낮추면 제1재의 판매량은 늘고, 이에 따라 보완재 제 2재의 판매량 역시 동반상승 한다고 하였다.³⁾ 따라서, 독점기관이 가격을 하락시킴에도 불구하고 정부재 판매량이 늘어 총 이윤이 늘어난다. 분권형 정부에서는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단위당 뇌물 수준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공급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Murphy 외(1993)는 부패유발과 확산에 대한 배경요건으로 정부조직의 설립이 새로운 대리인의 진입을 허용하고, 이것이 법과 제도의 한계, 부패행위자 연계와 맞물려 부패는 확산된다고 하였다.

또한, Rose-Ackerman(1975)은 시장구조 역시 중요한 지대추구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공공영역과 시장의 비경쟁적 구조 하에서 부패 발생이 일반적이라면 공공조직의 재량권 여부가 경쟁시장 구조에서의 부패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공공조직의 재량권이 정부의 불명확한 평가체계와 결합할 경우 생산자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이를 비용으로 전환하여 생산단가에 반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시장 체제 내에서 정부의 평가기준이 명확한 경우에도 품질차별이 없는 생산물의 공급에서는 입찰경쟁이 치열해지고 생산자는 초과이윤범위 내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민간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부패연결망의 형성에 있어서 배경적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다음과 같다: ①조직내 위계의 존재, ②수뢰자와 증뢰자간 정보의 비대칭, ③지대추구 유발요인(재량권, 이권, 정보), ④기회비용의 과대평가, ⑤기회비용과 기대이익의 선순환(임성범, 2014).

3) 통합독점기관의 보완적 정부재가 뇌물가격 p_1, p_2 를 동시에 결정할 때, 판매량을 각각 x_1, x_2 라 한다. 뇌물을 포함한 공식가격 p 가 부처의 MC(marginal cost)와 일치하므로 단위당 뇌물은 $p_1 - MC_1, p_2 - MC_2$ 이다. 통합독점기관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MR_1 + MR_2 \frac{dx_2}{dx_1} = MC_1$ 이다. 이때 두 재화는 보완재 이므로 $\frac{dx_2}{dx_1} > 0$ 이고, 최적생산량에서 $MR_1 < MC_1$ 의 조건이 성립된다. 이때, 보완재 제 1재의 판매에서 얻는 뇌물수입을 줄여 거래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hleifer and Vishny, 1993:605-606).

이러한 공공조직의 특수한 상황은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배경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문제 자체를 구조적 차원으로만 한정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 부패행위에서 행위자의 선호의지는 전적으로 구조적인 부분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행위자가 지닌 도덕적/윤리적 기준과 법제도적인 측면의 규제, 그리고 조직내 구성원 간·집단 간 권력관계에 기반 한 상호건제가 이를 통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수준에서 부패행위를 결정하고 통제하는 기제들이 조직 또는 사회구조 내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패를 위한, 그리고 부패를 통한 연결망이 형성되고 관리되는 즉, 행위가 구조화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바와 같이 집단의 역학관계가 어떠한 식으로 행위자들을 망에 끌어들이고 무엇을 매개로 하여 망을 확장 시키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제들이 그러한 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지 부패가 공공조직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내생적으로 생성되는 지대(Hessami, 2010)의 결과물만도 아니며, 행위자의 문제만도 아니고 이들의 복합적 상호작용 결과로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3. 부패이론의 구조화

본 연구는 한국사회 부패문제의 핵심에 있는 공공조직 부패문제를 단순히 조직기강의 해이로부터 발생하는 병폐 또는 산업 및 사회발전의 부산물로 인식하는 종속적·필연적 개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네트워크 개념을 적용하여 부패문제를 행위자의 행위와 선호의 결합이라는 ‘출현적 속성(emergent property)’을 통해 구조화되는 과정으로 확대/해석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즉, 거래형 부패에서 행위자 간 연계를 통해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이 확대되어 조직 또는 사회구조 속에 체제화 되는 전체과정을 시간중속적 관계를 배제한 상태에서 수준(level)을 크게 개인, 집단, 그리고 조직수준으로 분할한다. 그리고 각 수준은 상호 중요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개인수준에서 부패의지가 발현되어 집단수준에서 행위자 간 연계를 형성하고, 다시 조직수준에서 체제화된 상태에서의 요인들 간 영향력 관계를 고려한다. 일련의 과정은 연결망 확산에 따라 원자화된 개체의 선호의지가 공간으로의 확장을 통해 조직시스템 속에 체제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1). 개인수준의 부패의지 발현

개체의 선호로부터 출현하는 부패발생의 원인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패발생의 주요한 계기 내지 주요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부패를 위한 거래관계는 개체와 개체간의 선호에 의해서 발현되며, 특히 지대(rent)의 선점 과 교환을 위한 ‘경제행위’와 ‘규범’, ‘처벌’이라는 사회적 덕목 사이에서 행위자들은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Klitgaard, 1988;

Becker, 1968). 따라서 공공조직과 관련된 부패는 발단배경에 개체의 '지대추구 행위'라는 갈등의 경제학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 인간사회의 특성, 즉 상호 호혜적 거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Coase 정리'와 "권력을 가진자가 금(金)을 가진다"는 Machiavelli적 법칙의 결합은 개체의 선호축발과 부패라는 매개체를 통한 행위자 간 연계형성의 중요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양운철, 1995: 260).

'행위의 발단을 위한 환경으로서의 사회구조'는 개체중심의 출현적 속성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Hirshleifer, 1994). 즉, 경제적 유인의 크기, 법률적 제재의 수준, 그리고 집단적 정의감의 정도가 그것이다(Becker, 1968; Klitgaard, 1988; 박세일, 2000).⁴⁾ 먼저, 경제적 유인이 클 경우, 다음과 같이 경제적 이익이 쉽게 발생하고 쉽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부패발생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① 정부가 시장가격 이하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② 정부가 새로운 재산권의 공급량을 제한할 때, ③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을 때, ④ 정부가 행정규제, 세금,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 ⑤ 정부가 경제거래의 주체가 될 때. 증·수뢰자 모두에게 이러한 배경의 특수성은 부패행위를 위한 동기를 제공한다. 조직 외부 증뢰자의 경우 조직 내부의 지대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여 경제적 가치추구 동기가 형성되며, 이것이 적극적 지대추구 행위(조직 내 로비비용 유입)를 유도한다. 수뢰자의 입장에서 조직 내부에 형성된 이권(지대)의 인지(가치평가)로 인해 부패행위에 대한 잠재적 동기(기대이익)가 형성된다.

두 번째로 법률적 제재가 적을 경우 부패발생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여기서 법률적 제재의 수준이란 두 가지 변수 즉, 부패행위가 발견/처벌될 확률과 처벌의 강도에 의해 결정된다(Becker, 1968). 이러한 법률적 제재의 수준은 증·수뢰자로 하여금 부패유발을 유인하는 요건인 동시에 통제하는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패발생은 개체의 심리적 상태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기에 두 가지 변수(행위가 발견되거나 처벌될 확률, 처벌의 강도)를 조직에서 얼마만큼 잘 조합하여 적용하는가는 중요한 내·외적 통제기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적 정의감의 수준이 낮을 경우 부패는 그 크기를 달리한다. 집단적 정의감과 경제적 유인에 대하여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는 둘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박세일(2000: 10-18, 86-116)은 데이비드 흄(David Hume)의 효용정의론(즉, 정의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공적(公的)으로 유용하기 때문에 등장하였다고 봄)과 아담스미스(Adam Smith)의 동감정의론(즉, 독립적인 제3자가 느끼는 동감(同感)에서 정의(正義)의 원천을 찾음)을 통하여 접근의 방향을 제시하며, 특히 불의(不義)에 대한 집단 감정과 관련하여 동감정의론의 높은 설득력을 역설하고 있다.⁵⁾ 여기서 집

4) 그러나 이상의 3가지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패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부패발생의 가능성(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이들은 단지 부패발생의 필요조건으로 볼 수 있지 충분조건으로 확대해석 하는 것은 곤란하다.

단의 정의에 대한 관점을 이처럼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집단 내 부정과 부패에 대한 개체의 부정적 감정의 발생가능성, 그리고 이로부터 기대되는 건전한 집단문화의 구축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2). 집단수준의 연결망 형성과 관리

비공식적 연결망에 의한 거래형 부패는 개체의 속성에 의한 부패발생 뿐만 아니라 조직 혹은 연결망 내에서 참여자들 간의 연계(즉, 관계적 속성)를 통해 설명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개체의 속성이 집단과 부패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전이되는 과정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여기서는 부패연결망 관리, 기대이익 공유, 그리고 관련집단의 포섭을 통하여 부패연결망 내 참여자들 간의 네트워크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부패연결망 관리의 경우 Blau(1964)에 의한 교환이론의 배경 하에서 권력이론이 설득력을 확보하는 경우, 연결망의 핵심으로부터 발현되는 속성 즉, '권력 지향성'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네트워크 내에서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대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수직적 관계에서 중앙과 주변부의 단일연결망을 거쳐 상호 수평적 거래 관계로 변화할 때 지대의 거래를 통한 권력의 생성과 이동이 발생한다. 또한, 권력의 하위 구성요소인 정보가 조직 내, 그리고 조직내외부간 행위자 사이에 비대칭적으로 존재할 때 역시 권력관계가 형성(권력지향성의 발현)될 수 있다(Crozier, 1964).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권력관계의 형성은 권력에 수반한 여러 가지 제반요인들의 매력을 더욱 크게 부각 시킨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네트워크는 그 생존과 존속, 그리고 연계를 통한 지대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동과 접촉을 빈번하게 한다. 특히, 부패라는 주제 또는 행위를 매개로 형성된 연결망은 주제 자체가 지닌 특성(경제적 가치)과 적발 및 처벌에 대한 위협의 인지, 그리고 대응필요성으로 인하여 망의 확산(Networking)에 적극적으로 된다. 즉, 행위자들에 의해 부패연결망의 자발적 결속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집단과 집단, 집단과 개인 간 결속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요인이 존재하는데 기대이익의 공유이다. 이는 네트워크의 폐쇄성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이 “단일사회(Coleman, 1988)”는 네트워크의 밀도와 집중도가 동시에 상승하는 독특한 특색을 야

5) 효율정의론과 동감정의론의 관계는 ‘교환적 정의’의 해석에 있어서 데이비드 흄(David Hume)이 주장하는 ‘공리주의적 정의관(公利主義的 正義觀)’의 존재 이유에 대한 확대해석의 경계(警戒)를 기본으로 한다. 즉, 교환적 정의가 곧 경제적 효율성 실현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또한 정의와 효율 간에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교환적 정의의 존재이유를 효율성과 결부 시키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른다(박세일, 2000:97). 조직내 부패행위자들의 부패발생인식에 대해 효율정의론의 주장에 따르면, 부패행위 자체에 자기통제(self-command)기능 역시 구축이 당연시 되는 것이나 실제로는 제도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그 실현이 어렵다. 박세일(2000:97)은 이러한 흄의 정의가 사후적(事後的) 기능과 사전적(事前的) 목표 내지 존재 이유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담스미스(1996)와 박세일(2000)를 참조하라.

기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패는 감정적 지원, 정보교류의 활성화, 배신행위의 약화 등으로 고착화된다(Lin, 2001; Wasserman & Faust 1994). 또한, 부패연결망의 결속과 확산은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기대이익이 행위자와 집단에 인지되거나 실제 해야 한다. 이 경우 기대이익의 공유는 행위자들에게 경제적 가치로 작용하여 연결망 내부에서 행위자들의 잔류시간을 늘리며, 행위자들 간 부패행위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기대이익의 공유는 연결망이 형성되고 유지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기능한다.

마지막으로 앞의 연결망 관리가 소극적 확산기제라면 관련집단의 포섭은 보다 적극적인 연결망 확산기제로 볼 수 있다. 부패연결망과 관련한 합리적 선택의 작용을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제도와 개체의 관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규율(Shepsle, 1989)로 설명할 수 있으며, 개체와 개체간의 관계는 합리적 선택(North, 1998:247-249; Dowding & King, 1995; Vandenedberg, 2002)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부패연결망의 확산 및 구조화에 ‘합리적 선택(Coleman, 1988)’의 개념이 고려되는 것은 이 접근이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기초를 두고 거시적 현상(Networking)을 설명하기 위한 미시적 기초(행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James Coleman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공공조직 내에서 부패는 개체들의 권리나 권위를 다른 사람 또는 집단에게 허락함으로써 확산이 가능해 진다. 즉, 개체간의 독립적 단위가 다른 독립단위들과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부패를 통한, 그리고 부패를 위한 개체단위의 선호 극대화가 망이 연결되면서 집합적 행위자의 노력으로 전이되는 과정이다(Coleman, 1990: 198-9). 앞에서 언급한 ‘권력지향성’이 연결망의 구조적 특수성과 행위자 선호의지와의 상호작용 결과라면 관련집단의 포섭은 연결망 형성이 시작된 상태에서 개개 행위자들의 집합적 의지가 구조화되어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3). 조직문화적 측면의 부패연결망 체제화

폐쇄적 조직구조에서 구성원은 안정적 조직기류를 지향한다. 따라서, 혁신과 같은 내외부 변동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Ford et al., 2008). 응집력이 클수록 그리고 권력체계가 복잡할수록 변동발생에 대한 저항력은 클 수밖에 없다. 공공영역의 부패문제는 실제로 외부에서 조직내부를 통제하고 부정행위를 노출시키기가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는 조직내부와 외부의 정보차이와 접근가능성, 폐쇄성 등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논리는 구조적 지배력의 존재와도 연계되는데 조직구조 내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행위자는 상대방부터 정보의 획득이 쉬우며, 이들에 대한 연합을 통제하기도 하고 촉진시키기도 한다(Burt, 1992; Spence, 1974). 따라서, 일단 연결망이 형성되고, 여기에 확산 및 운용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연결망은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된다(Murphy et al., 1993). 경제행위가 조직구조 속에 배태되어 동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⁶⁾ 이는 ‘경로의존성’ 기제를

연결망 스스로 출현시켜 이것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강한 시스템을 지향하게 된다. 연결망 자체가 권력화 되는 것이다(Stefes, 2007; Stefes, 2008).⁷⁾ 이 상황에서 연결망이 배태되어 있는 사회 및 조직의 구성원들은 스스로에 대한 집단적 방어 의지를 지니게 된다(Portes and Landolt, 1996). 따라서, 외부에 대해서는 견제와 방어기제가 작동하며, 내부에서 그러한 균형과 경제행위를 방해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강한 배척(압력행사)을 하게 된다. 부정한 개인들로부터 형성된 집합적 의지가 부정을 정당화 하는 권력으로 전이된 것이다(Kandel and Lazear, 1992; Coleman, 1990).

부패행위에 대한 관용역시 중요한 조직의 습속(folkway)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조직 또는 영역의 특성이 다른 영역과 교류가 적을수록 즉, 폐쇄적 연결망 일수록 가능성이 높다. 폐쇄적 연결망 또는 폐쇄적 조직구조에서는 외부견제 장치를 통한 통제가 어려우며, 또한 이러한 구조에서는 구성원의 동류애(homophily)와 함께 권위애의 복종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만일 집단 또는 조직이 부패통제에 직면하여 적발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 하여도 연결망 내부 구성원의 이탈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집단잔류의지는 비교수준(comparison level)과 대안비교수준(comparison level for alternative)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Thibaut and Kelly, 1959). 비교수준은 개인의 집단에 대한 귀속여부 평가를 시간 의존적 관점에서 총성과의 평균으로 비교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다수의 대안이 존재할 경우 보상에 대한 부담의 비율로부터 가장 유리한 집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미 정형화된 로비의 루트가 존재하는 경우이며, 동류애와 권위애의 복종을 통해 부정적 사회자본(social bads of social capital)이 구조 내에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탈이 발생하지 않는다(Warren, 2006; Forsyth, 2006; Portes and Landolt, 1996).

그리고, 부패연결망의 권력화를 통해 확보하는/확보되는 지대(rent)는 구성원의 입장에서 매우 큰 매력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연결망에 대한 조직제재를 피하게 되고 부패행위에 대한 관용의 분위기(즉, 행위의 암묵적 합의)를 형성한다(Browning *et al.*, 2000; Stefes, 2008). 거래형부패가 핵심행위자를 통해 조직시스템 내부에 체제화 된 경우 부패연결망이 조직 내에서 하나의 기류(atmosphere)와 습속의 기능을 행사하는 경향이 크다. 그 중에서도 연결망이 체제화 되어 권력을 지향하는 체제화과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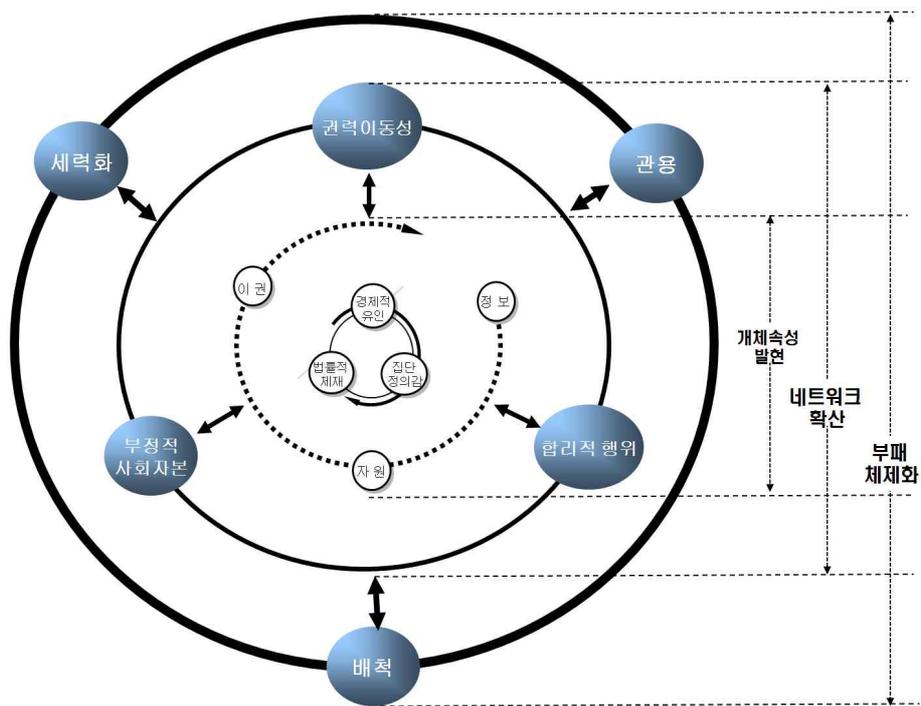
6) '배태되었다(embedded: 손동원, 2005:223)'라는 용어와 '자리매김(embedded: 김용학, 2003)'이라는 용어는 매우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대조를 이룬다. 여기서는 '자리매김' 대신에 '배태(胚胎)'라는 용어와 개념을 사용한다. '자리매김/자리매겨짐'이 행위자의 자발적인 선호의지(부패행위에 대한 합리적 계산)에 의해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지만 '배태'는 형성된 구조 하에서의 능동적 경제행위까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경제행위자가 원하는 네트워크에 자신을 "배태하고자(Uzzi, 1996, 1997; 손동원, 2005:223에서 재인용)"하는 적극적 능동성을 지지하는 손동원 교수의 개념이 보다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7) 일단 사회구조 내에서 이 수준까지 부패가 진행되면, 통제를 위한 노력이 효과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즉, 구조속에 기능(행위)이 흡착(배태)된 경우이므로 통제의 정도와 강도에 따라 그 만큼의 사회적 부담(load)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묵인하는 것은 조직구조 내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집단자체의 권력의지를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결망의 권력은 조직내부의 묵인과 비호를 통해 세력확장을 지향한다. 이는 조직내외부에서 관계적 특질을 이용하여 권위자들이 집단성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도 권위와 권력을 통한 연결망의 위세를 추구하기 때문이다(서정환·조준모, 1997; Chen, 2007; Browning *et al.*, 2000). 이러한 논리에 대해 Darley(1992:204)는 많은 행위악이 개개성원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산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복잡한 사회적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행위악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각 수준과 수준 내 요인들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조직에서 부패연결망의 형성과 확산을 위해 서로가 매우 강하게 연결되어 동시적 발생을 야기한다. 즉, 어느 것이 먼저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직 조직 및 사회와 그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영향력 행사의 정도가 존재할 뿐이다.

〈그림 1〉 부패연결망 형성 및 확산의 수준별 배경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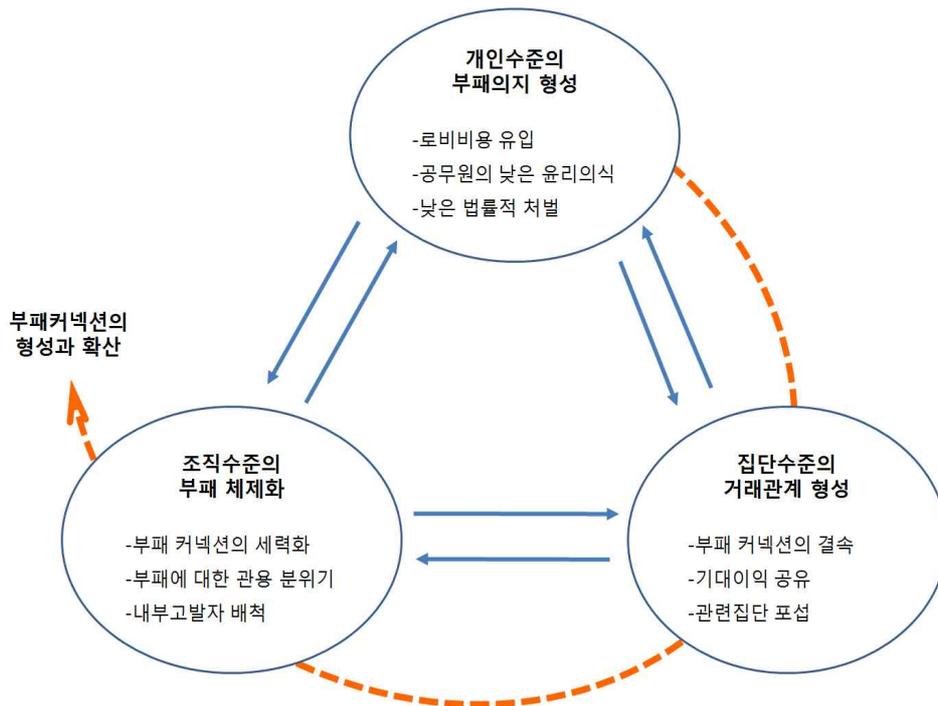


4. 핵심평가 요인 도출

조직시스템 내에서 부패연결망 형성과 확산에 대한 변동 메커니즘을 토대로 핵심기능을 도출한다. 이 요인(기능)들은 시스템 내에서 3개 수준에 대한 각각의 핵심기능을 제시한다. 먼저, 조직에서 개인의 부패의지가 형성되는 요건을 크게 지대교환을 통한 경제적 이득의 창출(로비비용의 유입)과 내/외부 통제 정도인 법률적 제재(Becker, 1968; Klitgaard, 1988),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부정적 감정발생 가능성(윤리의식)으로 고려하였다(Wirl, 1988; Klitgaard, 1988). 이들은 Becker(1968)와 Klitgaard(1988) 등이 제시한 법경제학적 측면의 배경이며, 개인의 부패의지가 형성될 확률을 높이는 방향 즉, **로비비용의 유입**, (조직 내외부) **낮은 법률적 처벌**, 그리고 **낮은 윤리의식**으로 요인(기능)을 설정하였다.

집단수준에서는 개개 행위자의 집합적 행동의 결과로 형성된 관계 그 자체가 권력화되어 행위자들과의 부패관계를 지향하는 권력이동성을 통해 **부패연결망 결속**이 이루어 진다(Crozier, 1964). 집단 간, 개인 간에 연계형성의 매개요인으로 기능하는 **기대이익의 공유**(Coleman, 1988), 그리고 연결망이 스스로의 방어와 보전을 위해 합리적 선택에 기반 한 연결망 운용(즉, **관련집단 포섭**)을 핵심요인으로 고려하였다(Vendenberg, 2002; Dowding and King, 1995).

〈그림 2〉 연구모형



조직수준에서는 집단의 연결망이 조직 또는 사회전반에 체제화 되어 하나의 문화로 내재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부패 연결망의 세력화**(Murphy *et al.*, 1993; Stefes, 2007; Stefes, 2008)와 부패가 하나의 습속(folkway)으로 고착화 되어 조직 또는 사회 전반에 부패행위에 대한 **관용의 분위기 형성**(Stefes, 2008; Browning *et al.*, 2000)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직 또는 집단의 구조속에 배태된 경제행위의 경로의존성을 저해하는 행위나 움직임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서 **내부 고발자 매척**(서정환·조준모, 1997; Chen, 2007; Browning *et al.*, 2000; Kandel and Lazear, 1992)을 들 수 있다. 각각의 수준 내에서 요인(기능)들은 서로가 중요하게 얽혀있으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이후 해석에 있어서 역시 각 수준에 따라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III. 분석기법 및 결과

1. DEMATEL 방식의 적용

여기서는 이론으로부터 유도된 모형과 핵심요인 도출로부터 어느 수준의 요인들이 조직 내 부패연결망을 형성하고 확산 시키는가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DEMATEL(Decision Making Trial and Evaluation Laboratory)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론은 Battelle Geneva Institute에서 보다 현실적 모델의 구조화를 위해 개발하였으며, 상호작용 모델뿐 아니라 사회문제의 정석적 측면과 그 요인들이 연계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려되었다. DEMATEL은 최초 그 메커니즘의 개발이후에 많은 연구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으며(예를들어, 산업계획, 의사결정, 지역환경 평가 등), 핵심알고리즘은 수학의 그래프 이론을 따른다. 이는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시각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자는 인과관계가 개입된 평가기준을 ‘원인’과 ‘효과’의 측면에서 분리시켜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시스템 내부의 내향 종속성의 역학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⁸⁾

DEMATEL은 유향그래프(directed graph)라고 불리는 방향성을 지닌 그래프를 통해 하위 시스템간의 관계를 방향성에 기인하여 표현할 수 있으므로 매우 효과적이다. 즉,

8) 복합 시스템 구조 내에서 모든 요소들은 상호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단일 요소를 통한 단일 영향력 산출과 시스템 잉여분에 대한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는것 역시 실제로 불가능 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Liou *et al.*, 2007). 게다가 내향종속성이 강한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되며, 위계구조가 강한 시스템에서는 종속성과 피드백의 부재가 시스템의 선형성(linear activity)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요건(즉, 종속성, 피드백)은 비위계적 구조에서 위계적 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digraph는 실제요소들과 그것들의 그룹화 속에서 communication network 또는 지배관계 (domination relationship)를 나타낸다(Liou *et al.*, 2007).

이러한 DEMATEL법은 다음과 같은 정의단계로 수행된다(Tzeng *et al.*, 2007).

step 0: 부패연결망의 형성과 확산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반영한다. 연구주제와 관련된 한국의 대표적 사정기관인 감사원(감사직렬), 검·경찰, 국회직 공무원(보좌관, 입법조사관), 그리고 교육직 공무원들로부터 연구주제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평가그룹을 크게 4그룹으로 구분하여-감사직렬(10명), 검·경찰(31명), 국회직렬(45명), 교육직렬(28명)-이들의 부패연결망 형성 및 확산에 대한 영향력 평가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평가의뢰 그룹의 분리는 대표적 사정기관인 감사원과 검찰·경찰이 속한 감사직렬 영역과 향후 법령 등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는 국회직 공무원(국회직렬)들 그리고 피사정기관인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교육직렬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각 그룹의 입장과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연구주제와 관련 있는 그룹들의 포괄적 수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직렬 공무원들의 경우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피사정기관으로서 응답에 대한 부담이 적으며, 응답자 결집 등을 고려하여 임의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해당분야에서 5~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평가대상의 선정은 국회의장실에서 주관하였으며, 공공조직의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업무경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조사는 2014년 7월에서 8월까지 두 달간 시행되었다.⁹⁾

〈표 1〉 참여자 직렬별 경력

직렬 \ 경력	5년 이하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무응답	계
감사직렬	-	1	1	4	4	-	10
검찰·경찰	-	-	1	7	18	5	31
국회직렬	14	16	4	5	5	1	45
교육직렬	7	9	4	1	5	2	28

step 1: 최초 각각의 요소 i 가 요소 j 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a_{ij} 라고 했을 때 평가자의 평가가 개입된 영향력 관계 평균 matrix A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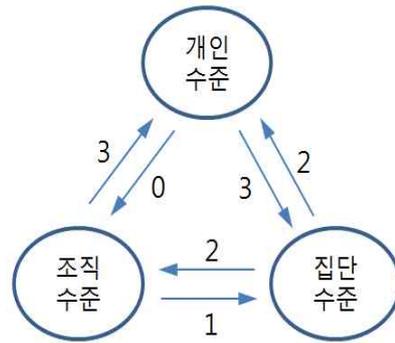
여기서 그 영향력의 정도를 0(전혀없음)~4(매우높음) 까지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9) 응답자 그룹 중 특정 조직의 경우 소규모 인력이기에 성별 등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평가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아래 <그림 3>과 같이 매트릭스 형태의 질문을 통해 요인들 간의 영향력 관계를 각각의 수준 내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 인과관계 지도

“공공조직의 부패연결망이 형성되고 확산되는데 각 수준의 요인들은 서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은 영향력 (4) 높은 영향력 (3) 낮은 영향력 (2) 매우 낮은 영향력 (1) 영향력 없음 (0)	Ⅰ.	Ⅱ.	Ⅲ.
	개인수준	집단수준	조직수준
	L1. 개인수준	3	0
	L2. 집단수준	2	2
L3. 조직수준	3	1	



step 2: matrix A를 표준화 시켜 영향력 matrix $D, [d_{ij}]_{n \times n}$ 를 계산한다.

step 3: direct/indirect matrix를 설정한다. 여기서 간접영향력은 matrix D의 멱승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들게 되며, 이는 matrix 순환의 수렴성 충족방식이다.

즉, 직/간접 영향력의 무한계열을 형성한다. matrix A의 (i, j)요소는 a_{ij} 로 표현되며, 직·간접 matrix는 아래식 (1)~(4)를 통해 구해진다.

$$D = s * A, \quad s > 0 \tag{1}$$

또는

$$[d_{ij}]_{n \times n} = s [a_{ij}]_{n \times n}, \quad s > 0, \quad i, j \in \{1, 2, \dots, n\} \tag{2}$$

$$\text{여기서 } s = \text{Min} \left[\frac{1}{\max_{1 \leq i \leq n} \sum_{j=1}^n |a_{ij}|}, \frac{1}{\max_{1 \leq j \leq n} \sum_{i=1}^n |a_{ij}|} \right] \tag{3}$$

그리고

$$\lim_{m \rightarrow \infty} D^m = [0]_{n \times n} \quad \text{여기서 } D = [d_{ij}]_{n \times n}, \quad 0 \leq d_{ij} \leq 1. \tag{4}$$

전체 영향력 matrix T는 식 (5)를 통해 구해지며, 여기서 I는 단위행렬이다.

$$T = D + D^2 + \dots + D^m = D(I - D)^{-1}, \quad \text{여기서 } m \rightarrow \infty. \tag{5}$$

만일 열과 행의 합이 벡터 \mathbf{r} 과 \mathbf{c} 로 표현된다면, 전체 영향력 matrix \mathbf{T} 는 다음과 같다.

$$\mathbf{T} = [t_{ij}], \quad i, j = 1, 2, \dots, n. \quad (6)$$

$$\mathbf{r} = [r_i]_{n \times 1} = \left(\sum_{j=1}^n t_{ij} \right)_{n \times 1} \quad (7)$$

$$\mathbf{c} = [c_j]'_{1 \times n} = \left(\sum_{i=1}^n t_{ij} \right)_{1 \times n} \quad (8)$$

여기서 위첨자 (')는 이항을 나타낸다. r_i 가 matrix \mathbf{T} 에서 i 번째 열의 합을 나타낼 때, r_i 는 모든 다른 기준들에 대해 요소 i 의 직·간접 영향력의 합을 지닌다. c_j 가 matrix \mathbf{T} 의 j 번째 행의 합을 나타낼 때, c_j 는 j 에 대한 모든 평가 기준들의 직·간접 영향력의 합을 나타낸다. 더욱이 $j=i(r_i+c_i)$ 는 i 가 영향력을 미치거나 혹은 j 에 의해 영향력을 받는 정도를 나타낸다. (r_i-c_i)가 (+)일 경우, 요소 i 는 다른 요소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 경우, 다른 요소들에 의해 영향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Liou *et al.*, 2007; Tzeng *et al.*, 2007). 또한, 요인들 간의 영향력관계와 개개요인 자체의 영향력 관계(feedback loop)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수준(level)에서 역치값(Threshold value: α)의 개념을 전체관계 matrix $\mathbf{T} = [T_{ij}]_{n \times n}$ 에 개입한다(Yang *et al.*, 2008; Sumrit and Anuntavoranich, 2013). 이는 전체관계 matrix \mathbf{T} 에서 요인 t_{ij} 가 역치값을 능가할 경우 요인간의 영향력이 뚜렷하게 존재한다(즉,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보는 방식이다(Shieh *et al.*, 2010; 임성범, 2014)

$$\alpha = \frac{\sum_{i=1}^n \sum_{j=1}^n [t_{ij}]}{N} \quad (9)$$

요인 또는 수준 그 자체가 지닌 중요도 파악을 위한 CI(Composit importance)를 적용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에게 조직저항 및 확산을 유도하는 요인 그 자체의 중요도를 5등급으로 질문하였다(Tamura and Akazawa, 2005). 이를 통해 n 차원의 벡터 y^* 를 구성한다. 그리고 y^* 의 표준화 벡터 y 는 다음과 같다.

$$y = \mu \cdot y^* \quad \text{여기서 } \mu = 1/(y^* \text{의 최대값}) \quad (10)$$

$$T_{CI} = Y + Ty = (I + T)y \quad (11)$$

IV. 분석결과

일반적인 DEMATEL 분석에서 수직축(R-C)이 plus(+)일 경우, 요인들은 원인 그룹에 속하고, minus(-)일 경우, 효과그룹에 속한다(Tzeng *et al.*, 2007). 최종 분석결과 평가에 참여한 4집단 감사직렬, 검·경찰, 국회직렬, 일반행정(교육)직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들을 제시할 수 있다. 조직 및 사회시스템 내에서 부패연결망을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된 요소들에서 원인그룹에 속한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원인그룹에 속한 요소들은 동일 수준에서 다른 요인들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지닌 요인들이다. 반면에 효과그룹에 속한 요인들은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다(Fontela & Gabus, 1976). 즉, 원인그룹의 요소들은 변동성이 적으며, 효과그룹은 원인그룹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보다 쉽게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Hori & Shimizu, 1999). 또한, 수평축(R+C)의 우측에 위치할수록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요인들이다. 이 요인은 시스템 구조 내에서 타 요인들과의 영향력 행사와 수용(즉, 전이(轉移))에 가장 높고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요인(engine)이다. 다시 말해 동일 수준 또는 동일 시스템 내에서 다른 요인들의 매개요인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1. 감사직렬

감사직렬에서는 한국의 부패연결망을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수준을 개인, 집단, 조직으로 보았을 때, 조직수준의 요인들이 다른 수준들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대신 변동성은 가장 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집단수준 요인들이 핵심 매개요인으로 기능한다고 평가하였다. 즉, 감사직렬에서는 부패연결망의 형성과 확산에 있어서 조직의 구조적 특수성에 의해 강력한 영향력이 형성되며, 집단수준 요인들은 이러한 영향력(힘)을 받아들여 다른 수준으로 전이(轉移)시키는 매개요인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이를 각각의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개인수준에서는 낮은 법률적 처벌을 핵심원인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요인들에 영향력을 가장 활발하게 행사(R)하기도 하며, 또한 다른 요인들로부터 영향력을 받기도하는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집단수준에서는 세요인 모두 영향력 전이(R+C)가 비슷한 정도에서 순수한 영향력 행사(R-C)만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수준에서는 부패행위를 통한 연결망 내부의 기대이익이 관련집단을 포섭하고 연결망을 결속시키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입장이며, 이러한 관계는 요인간의 순환적 관계가 아닌 일방향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조직수준에서는 부패에 대한 관용을 핵심원인요인이면서 매개요인으로 보고 있다. 부패에 대한 조직의 관용 분위기와 내부고발자 배척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이 조직수준에서 부

패커넥션을 세력화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내부고발자 배척의 경우 CI가 15.62로 매우 높은 중요도를 지녔으며, 그 자체가 feedback loop를 형성하고 있다.

대표적 사정기관 신분중 하나인 감사직렬에서는 부패연결망의 형성과 확산에 있어서 조직수준 요인들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며, 특히 이 수준에서는 구성원들의 부패에 대한 관용과 내부고발자 배척을 연결망 세력화의 핵심요인으로 보고 있다.

〈표 2〉 전체관계 matrix(감사직렬)

$L_i \backslash L_j$	L_1	L_2	L_3	CI
개인수준(L_1)	14.170	14.489	13.851	28.27
집단수준(L_2)	15.335*	14.995*	14.676	29.87
조직수준(L_3)	15.500*	15.500*	14.500	30.23

$\alpha = 14.78$

$C_i \backslash C_j$	C_1	C_2	C_3	CI
로비비용 유입(C_1)	4.274	4.369	4.190	8.99
낮은 윤리의식(C_2)	5.041*	4.507	4.629	9.84
낮은 법률적 처벌(C_3)	5.480*	5.246*	4.685	10.68

$\alpha = 4.713$

$C_i \backslash C_j$	C_1	C_2	C_3	CI
부패커넥션 결속(C_1)	10.154	9.950	10.377	20.47
기대이익 공유(C_2)	11.259*	10.364	11.144*	21.94
관련집단 포섭(C_3)	10.705*	10.180	10.279	2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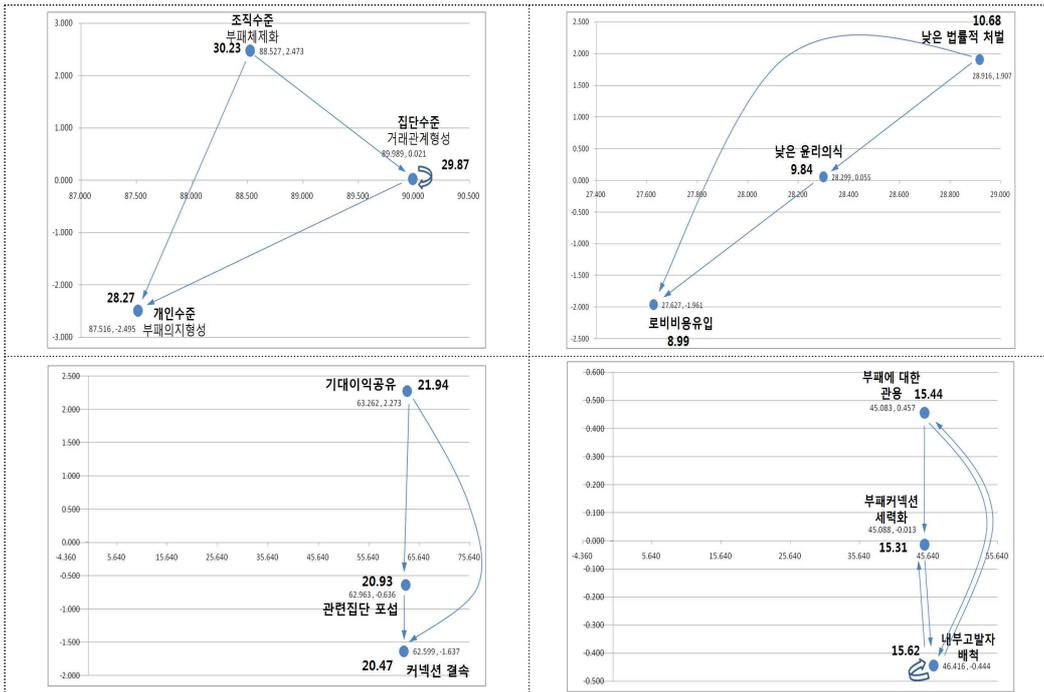
$\alpha = 10.490$

$C_i \backslash C_j$	C_1	C_2	C_3	CI
부패커넥션 세력화(C_1)	7.230	7.465	7.842*	15.31
부패에 대한 관용(C_2)	7.616*	7.228	7.926*	15.44
내부고발자 배척(C_3)	7.704*	7.620*	7.662*	15.62

$\alpha = 7.588$

* > threshold value α

〈그림 4〉 인과지도(감사직렬)



2. 검·경찰

전체수준에서는 수직축(R-C)의 위쪽에 위치한 개인수준과 조직수준 요인들이 부패연결망을 형성하고 확산 시키는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개인수준이 수평축(R+C)의 가장 우측에 위치함으로써 부패연결망을 형성하고 확산 시키는데 핵심매개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직수준과 개인수준요인들이 핵심 원인요인이면서 서로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수준에서 부패의지를 형성하는데 수직축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낮은 윤리의식이 로비비용 유입과 낮은 법률적 처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로비비용 유입을 핵심매개요인으로 기능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낮은 윤리의식과 로비비용유입의 경우 영향력의 상호작용이 형성되어 있으며, 로비비용유입은 역치값($\alpha=8.23$)을 개입시킨 상태에서 요인 그 자체에 feedback loop 가 형성되어 있다.

집단수준에서는 수직축(R-C)의 위쪽에 위치한 부패커넥션의 결속과 기대이익공유가 핵심원인요인이며, 수평축(D+R)의 가장 우측에 위치한 커넥션 결속이 핵심매개요인으로 기능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집단의 결속을 통한 기대이익의 공유가 가능하며, 반대로 기대이익의 공유가 집단결속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두 요인은 관련집단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변동성이 가장 적은 요인들이다. 이에 비해 관련집단의 포섭은 두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요인들이다. 역치값($\alpha=140.69$)을 개입시킨 상태에서 커넥션 결속은 그 자체에 feedback loop 가 형성되어 있다.

조직수준에서는 좌측 위쪽에 위치한 내부고발자 배척이 조직수준의 부패체제화에 강력한 핵심원인요인이며, 부패에 대한 관용이 다른 요인들과의 영향력 전이에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검·경찰 그룹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배척이 부패 연결망 세력화와 부패에 대한 관용의 분위기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조직수준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배척을 핵심 원인요인으로 보는 것은 공공조직의 특성이 내부고발자를 통한 노출이 아니고서는 외부에서 부패 연결망에 대한 확산과 세력화를 발견하기가 어려움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결과는 동일한 사정기관이면서 감사직렬 공무원들과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감사직렬 그룹에서 부패연결망의 세력화가 부패에 대한 관용의 분위기와 내부고발자 배척의 중요 매개요인으로 보는 것과는 상이하다. 즉, 감사직렬에서는 연결망의 구조적 특수성과 동적인 기능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면 검·경찰에서는 부패를 형성하고 확산시키는데 개인과 조직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윤리의식(CI=18.83), 내부고발자 배척(CI=24.06) 등 조직문화적 부분을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전체관계 matrix(검·경찰)

$L_i \backslash L_j$	L_1	L_2	L_3	CI
개인수준(L_1)	17.81	18.48*	18.14*	39.11
집단수준(L_2)	17.55	17.54	17.54	37.96
조직수준(L_3)	17.87*	18.21*	17.54	38.67

$\alpha = 17.85$

$C_i \backslash C_j$	C_1	C_2	C_3	CI
로비비용 유입(C_1)	8.29*	8.25*	8.34*	18.16
낮은 윤리의식(C_2)	8.90*	8.17	8.58*	18.83
낮은 법률적 처벌(C_3)	8.14	7.78	7.57	17.31

$\alpha = 8.23$

$C_i \backslash C_j$	C_1	C_2	C_3	CI
부패커넥션결속(C_1)	141.41*	141.08*	141.75*	300.37
기대이익 공유(C_2)	141.25*	140.25	141.25*	299.45
관련집단 포섭(C_3)	140.08	139.41	139.75	29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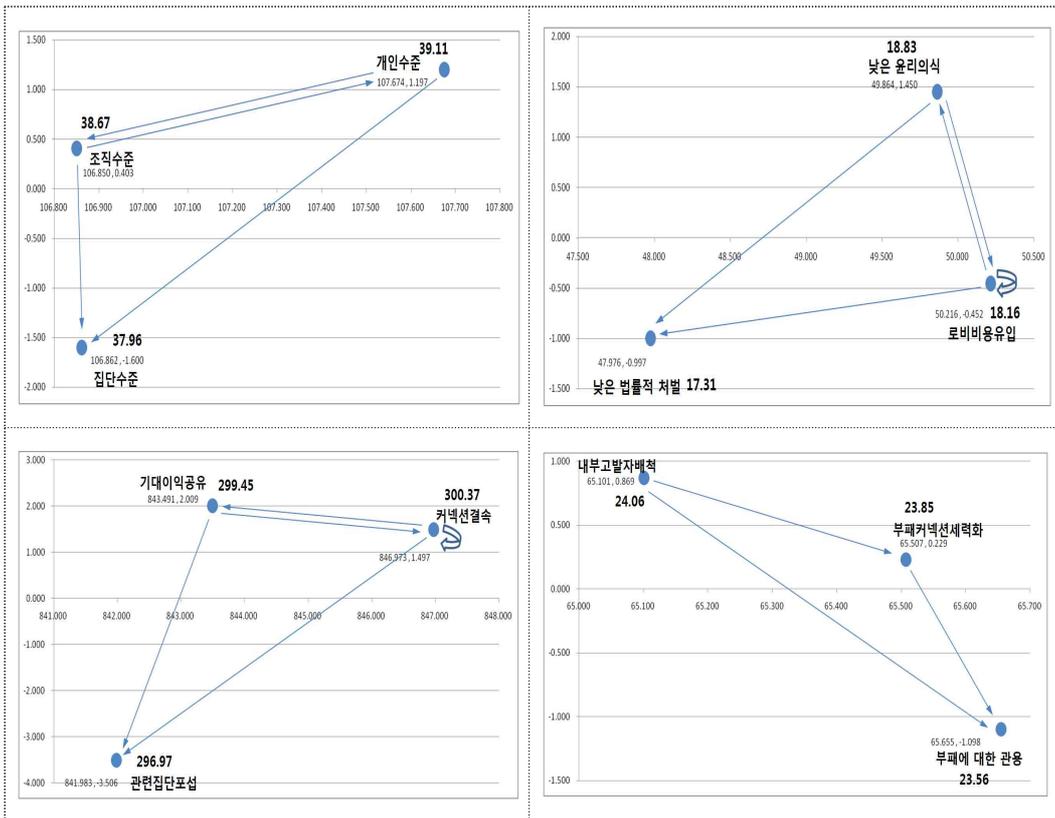
$\alpha = 140.69$

$C_i \backslash C_j$	C_1	C_2	C_3	CI
부패커넥션 세력화(C_1)	10.71	11.29*	10.87	23.85
부패에 대한 관용(C_2)	10.85	10.76	10.67	23.56
내부고발자 배척(C_3)	11.08*	11.33*	10.58	24.06

$\alpha = 10.90$

* > threshold value α

〈그림 5〉 인과지도(검·경찰)



3. 국회직렬

입법기관인 국회직렬의 경우 전체수준에서 검·경찰과 마찬가지로 개인수준요인들이 부패연결망을 형성하고 확산시키는데 핵심원인요인들로 보고 있으며, 핵심매개요인을 집단과 조직수준요인들로 보고 있다. 검·경찰에서는 개인-조직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국회직 공무원들의 경우 집단-조직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즉, 검·경에서는 조직의 미시수준 특성을 부패연결망 형성과 확산에 핵심으로 보는데 반해 국회직 공무원들은 미시수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이러한 영향력을 다른 수준으로 전이(轉移)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데는 집단과 조직수준의 기능들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체수준에서 역치값($\alpha=20.29$)이 개입된 경우 조직수준은 요인 그 자체의 feedback loop가 고려되며, CI 역시 44.03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각의 수준에서 평가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패의지가 형성되는 개인수준에서 핵심원인 요인은 낮은 법률적 처벌이며, 동시에 핵심매개요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낮은 법률적 처벌과 낮은 윤리의식이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효과그룹의 로비비용 유입은 다른 요인들로부터 영향력 수용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거래관계가 형성되는 집단수준에서는 핵심원인요인을 부패를 통한 기대이익 공유로 평가하고 있으며, 수평축(R+C)의 가장 우측에 위치한 부패연결망을 위한 커넥션 결속의 경우 핵심매개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부패를 통한 기대이익의 공유가 부패연결망의 결속과 관련집단 포섭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변동이 가장 적은 부분이다. 이에 비해 효과그룹의 두 요인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수평축의 우측에 위치한 커넥션 결속은 기대이익공유와 부패연결망 결속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R)하고 수용(C)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즉, 활성화되어 있는 요인이다. 동시에 두 요인을 매개하여 집단수준에서의 거래관계 형성을 활성화 시킨다고 평가되었다.

조직수준의 부패체제화에서는 수직축(R-C)의 위쪽에 위치한 내부고발자 배척을 핵심원인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 요인이 부패커넥션의 세력화와 부패에 대한 관용분위기에 중요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핵심매개요인으로는 수평축(R+C)의 가장 우측에 위치한 부패에 대한 관용과 내부고발자 배척으로 평가되었다. 즉, 내부고발자를 배척하는 것이 부패연결망의 세력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일단 망이 형성되어 세력화가 나타날 경우 연계된 집단 및 조직에서는 내부고발이 쉽지 않으며, 조직 내부에서 스스로 부패에 대한 관용의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평가결과로 볼 수 있다. 역치값($\alpha=95.03$)이 개입된 상태에서 요인의 수평축 우측의 두 요인은 요인 그 자체에 feedback loop가 고려되며, CI 역시 각각 204.02(내부고발자 배척), 202.62(부패에 대한 관용)로 나타났다.

〈표 4〉 전체관계 matrix(국회직렬)

$L_i \backslash L_j$	L_1	L_2	L_3	CI
개인수준(L_1)	19.58	20.31*	20.44*	43.31
집단수준(L_2)	20.17	20.26	20.73*	44.03
조직수준(L_3)	20.17	20.60*	20.39*	44.03

$\alpha = 20.29$

$C_i \backslash C_j$	C_1	C_2	C_3	CI
로비비용 유입(C_1)	5.86	5.86	5.85	12.99
낮은 윤리의식(C_2)	6.59*	5.94	6.22*	13.95
낮은 법률적 처벌(C_3)	6.72*	6.41*	6.04	14.25

$\alpha = 6.16$

$C_i \backslash C_j$	C_1	C_2	C_3	CI
부패커넥션결속(C_1)	13.96	13.92	14.00	30.18
기대이익 공유(C_2)	14.58*	13.87	14.29*	30.91
관련집단 포섭(C_3)	14.19*	13.81	13.58	3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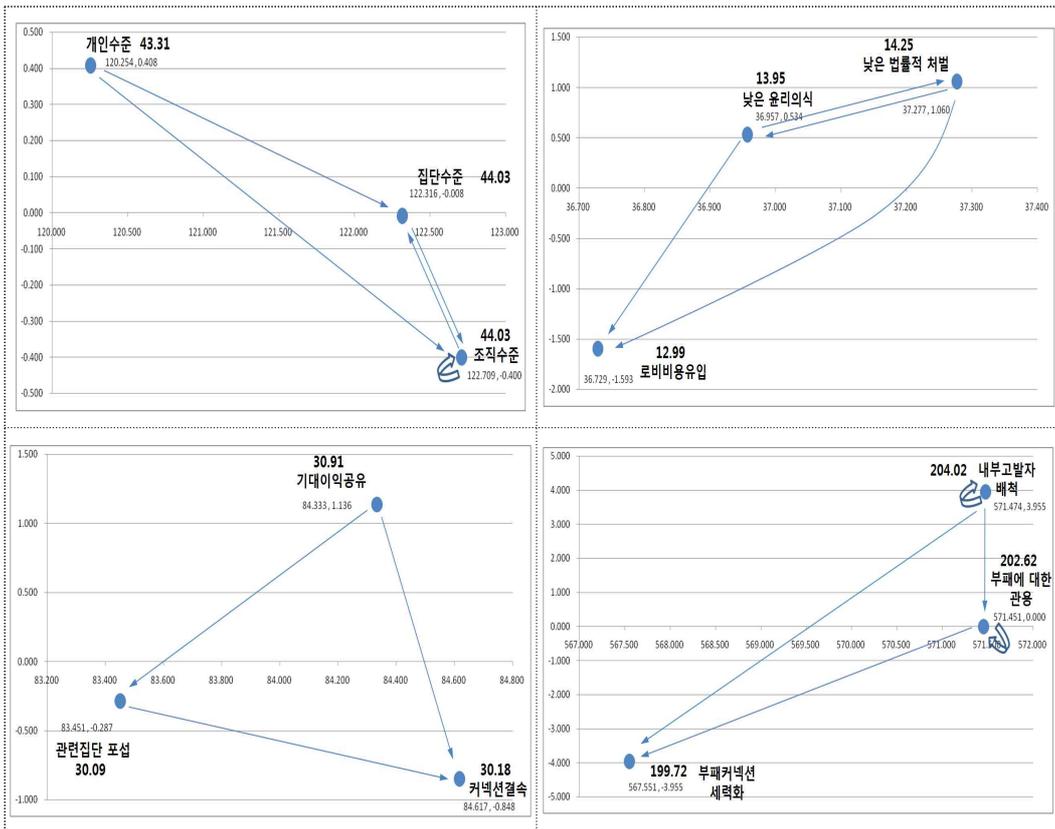
$\alpha = 14.02$

$C_i \backslash C_j$	C_1	C_2	C_3	CI
부패커넥션 세력화(C_1)	93.93	94.25	93.61	199.72
부패에 대한 관용(C_2)	95.58*	95.23*	94.91	202.62
내부고발자 배척(C_3)	96.24*	96.24*	95.24*	204.02

$\alpha = 95.03$

* > threshold value α

〈그림 6〉 인과지도(국회직렬)



4. 교육직렬

교육직렬 공무원들의 경우 전체수준에서 집단수준이 조직수준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수준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원인요인이자 매개요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집단과 조직수준의 경우 map 상에서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이 평가그룹(교육직렬)이 부패연결망의 형성과 확산을 중시적 수준(meso-level)에서 접근함을 알 수 있다.

부패의지가 형성되는 개인수준에서는 국회직렬과 마찬가지로 낮은법률적 처벌요인이 핵심원인요인으로 평가되었으며, 핵심 매개요인으로는 수평축(R+C)의 가장 우측에 위치한 낮은 윤리의식으로 보고 있다. 즉, 낮은 법률적 처벌이 부패행위에 대한 개인의 낮은 윤리의식과 비용유입에 영향을 주고, 개인의 낮은 윤리의식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순환관계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부분은 감사직렬과 국회직렬의 평가와 유사한 평가결과로 볼 수 있다.

거래관계가 형성되는 집단수준에서는 관련집단 포섭을 핵심원인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수평축의 우측에 위치한 커넥션 결속을 핵심 매개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집단포섭을 통해 권력이동성이 부패연결망 결속과 기대이익 공유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커넥션 결속이 기대이익 공유와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순환관계를 활성화 시킨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육직렬 공무원들의 경우 집단수준의 거래관계형성은 관련집단의 포섭을 통해 기대이익 공유와 연결망 결속이 가능하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국회직과 감사직렬에서 평가한 것과는 상이하다.

예를 들어 감사직렬, 국회직렬의 경우 기대이익의 공유가 집단포섭과 부패커넥션 결속에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에 반해 교육직렬 공무원들의 경우 집단의 포섭에 강한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연결망 자체의 중요성과 연결망 확산의 과정이 연결망 결속과 부패를 통한 공유 가능한 기대이익을 창출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앞의 두 직렬에서 부패유인을 통해 창출되는 지대의 공유(기대이익)가 집단형성을 유도한다고 볼 때, 교육직렬 공무원들은 네트워크의 동적기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직수준의 부패체제화에서는 부패에 대한 관용이 핵심원인요인이며, 부패커넥션 세력화와 내부고발자 배척을 매개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패에 대한 관용의 분위기가 연결망의 세력화와 내부고발자를 배척하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며, 이 두 요인은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관계를 조직내에 체제화 시킨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이들의 입장에서 부패연결망이 체제화 되는데 있어서 조직문화적 요인이 조직정치적 요인들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동일한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사정기관 소속의 감사직렬에서 평가하는 것과 유사하며, 검·경찰과 국회직렬에서 평가한 결과와는 상이하다. 예를 들어 국회직렬과 검·경찰에서 내부고발자를 배척하는 조직정치적 요인이 커넥션 세력화에 핵심적인 기여를 한다고 볼 때 감사직렬과 교육직렬 공무원 그룹에서는 부패에 대한 관용

의 분위기 즉, 조직문화적 측면에 상당히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공무원 신분임에도 소속에 따라 시각차가 발생하고 있다.

〈표 5〉 전체관계 matrix(교육직렬)

$L_i \backslash L_j$	L_1	L_2	L_3	CI
개인수준(L_1)	6.38	6.36	6.40	14.10
집단수준(L_2)	7.30*	6.61	6.99*	15.48
조직수준(L_3)	7.22*	6.87*	6.59	15.32

$\alpha = 6.75$

$C_i \backslash C_j$	C_1	C_2	C_3	CI
로비비용 유입(C_1)	6.55	6.66	6.45	14.48
낮은 윤리의식(C_2)	7.27*	6.72	6.83	15.43
낮은 법률적 처벌(C_3)	7.42*	7.19*	6.64	15.72

$\alpha = 6.86$

$C_i \backslash C_j$	C_1	C_2	C_3	CI
부패커넥션 세력화(C_1)	28.74*	28.84*	28.63	61.50
기대이익 공유(C_2)	29.08*	28.52	28.62	61.63
관련집단 포섭(C_3)	29.07*	28.85*	28.29	6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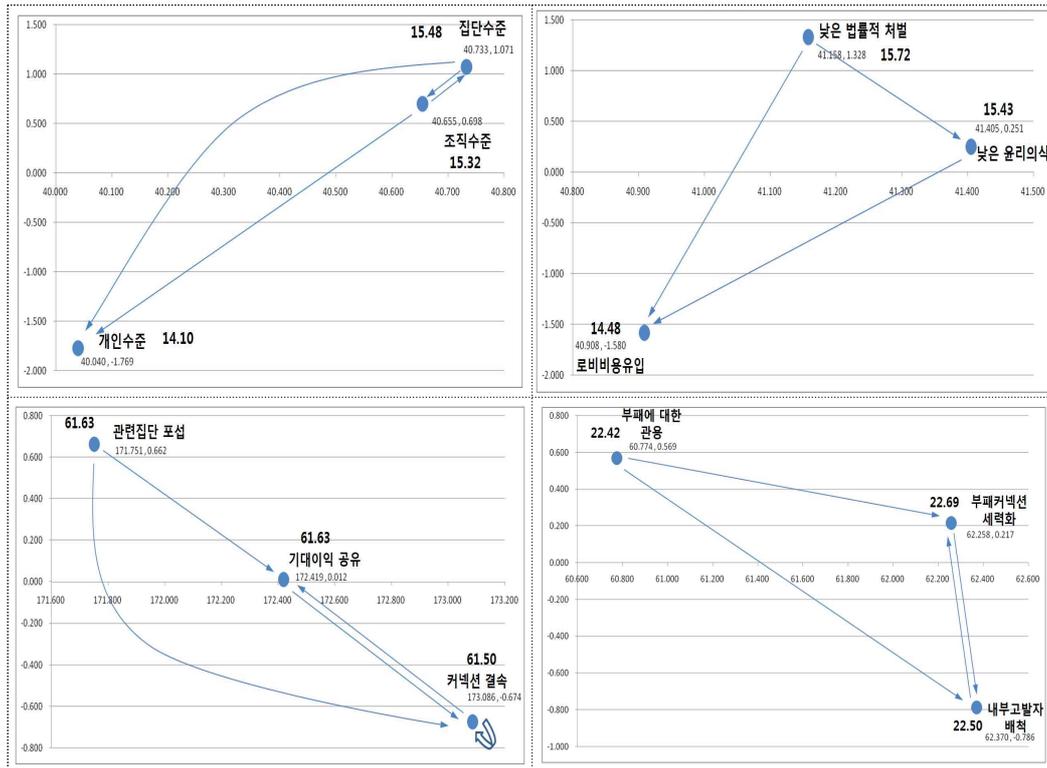
$\alpha = 28.74$

$C_i \backslash C_j$	C_1	C_2	C_3	CI
부패커넥션 세력화(C_1)	10.23	10.25	10.76*	22.69
부패에 대한 관용(C_2)	10.37*	9.75	10.55*	22.42
내부고발자 배척(C_3)	10.42*	10.11	10.27	22.50

$\alpha = 10.30$

* > threshold value α

〈그림 7〉 인과지도(교육직렬)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평가를 통해 공공조직의 부패연결망 형성과 확산에 있어서 조직시스템의 각 수준과 수준 내 요인들 간 상호영향력 관계의 정도와 방향을 탐색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으며, 초기에 제시된 이론과 모형에서 어떠한 변동이 평가그룹별로 발생하는지를 비교분석할 수 있었다. 앞에서 부패이론의 전개와 조직시스템 모형을 통해 개인·집단·조직수준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상호의존적(interdependency)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부패연결망의 형성과 확산에 대해 개인수준에서 형성된 부패의지가 집단과 조직으로 확산되는 동적과정을 모형화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관계와 단계는 매우 복잡한 상호의존관계에 의해 유지되고 확산되기에 하나의 수준 내에서도 핵심요인들 간 영향력 관계가 조직마다 상이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복잡한 내향중속성은 시스템모형의 단일요소를 통한 단일의 영향력 산출과 시스템잉여분에 대한 간섭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을 어렵게 한다(Liou *et al.*, 2007).¹⁰⁾ 이처럼 하나의 현상 또는 문제에 대해 수준을 분리시키거나 수준내 요인들의 관계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과 연구설계를 위해 DEMATEL 방식은 매우 유용하다. 또한, 복잡한 시스템 구조 내에서 요인간의 상호의존관계를 영향력의 행사와 수용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시스템 모형의 핵심요인을 단선화 시켜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장점으로 고려된다.

〈표 6〉 평가그룹별 핵심요인

구분 \ 그룹	감사직렬				검·경찰			
	전체 수준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	전체 수준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
핵심원인 요인	조직 수준	낮은 법률적 처벌	기대이익 공유	부패에 대한 관용	개인 수준	낮은 윤리의식	기대이익 공유	내부 고발자 배척
핵심매개 요인	집단 수준	낮은 법률적 처벌	-기대이익공유 -집단포섭 -커넥션 결속	내부 고발자 배척	개인 수준	로비비용 유입	커넥션 결속	부패에 대한 관용

구분 \ 그룹	국회직렬				교육직렬			
	전체 수준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	전체 수준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
핵심원인 요인	개인 수준	낮은 법률적 처벌	기대이익 공유	내부고발자 배척	집단 수준	낮은 법률적처벌	관련집단 포섭	부패에 대한 관용
핵심매개 요인	조직 수준	낮은 법률적 처벌	커넥션 결속	부패에 대한 관용	집단 수준	낮은 윤리의식	커넥션 결속	-커넥션 세력화 -내부고발자 배척

10) 시스템의 내향중속성이 강할 경우 외부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되며, 위계구조가 강한 시스템에서는 중속성과 피드백의 부재가 시스템의 선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중속성과 피드백에 대한 이러한 지적은 비위계적 구조에서 위계적 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Li, 1999).

V. 정책적 함의

1. 체제적 부패에 대한 본질적 접근필요

공공조직 내 부패발생은 비단 조직의 기능저하라는 조직 자체만의 문제뿐 아니라 공공영역의 신뢰하락과 정치영역과의 연계로 인해 정책집행의 추진력을 잃게 만든다. 특히, 비공식적 연결망을 근간으로 하는 체제적 부패의 경우 조직 내 강력한 영향력 행사뿐 아니라 조직 외부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력관계를 형성하기에 필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내외 많은 연구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 상태이며, 실제로 후생손실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공공조직 부패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있어서 부패를 다양한 사회현상의 부산물로 인식하거나 사회발전에 수반되는 불가결한 요인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하고 다변화됨에 따라 이와 같은 접근은 통제기제의 개발은 물론이며, 문제를 이해하는데도 오류를 발생시킨다(즉, 3중 오류의 발생). 이유는 부패의 진화 속도와 복잡성이 통제기제와 전략의 개발수준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부패행위를 다양한 참여자들의 개입과 비공식적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집단적 거래형 부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거래형 부패는 다양한 부패유인에 이를 실제적으로 수행할 행위자들이 개입된 매우 역동적 부패이다. 그리고 이 유형은 부패가 스스로 자기생존본능을 지니고 있기에 조직시스템 내부 그리고 외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부패를 체제화 시킨다. 이러한 특성은 부패통제 기제의 개발을 매우 어렵게 하는데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 할 뿐 아니라 가변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유형은 요인의 독자적인 영향력이 전체 부패구조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의 관계적 속성을 통해 부패구조와 영향력 관계를 형성해 가기에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접근과는 다른 방식이 요구된다. 즉, 선행되는 사건 또는 현상에 후행하는 필연적인 접근이 아니라 동시성을 지닌 시스템 구조와 차원, 그리고 수준을 달리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볼 때 문제의 본질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질을 탐구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많은 조직이 그들의 고유한 조직문화와 업무풍토,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러한 접근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획일적인 접근과 어느 한 수준에 초점을 맞춘 통제 전략은 조직의 구조적·기능적 특수성과 연동된 부패연결망을 통제하기 어렵다. 오히려 사기저하, 업무공백, 부패의 은폐 및 진화(進化)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한다. 조직을

기준으로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통제전략과 통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시간 대비 효율적 전략이 개입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제본질에 대한 진단을 통한 탐색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부패연결망의 형성과 확산에 있어서 평가에 참여한 4그룹의 의견이 다소 상이하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개인수준의 부패의지 형성에서는 '낮은 법률적 처벌'이 원인으로 작용하며, 집단 수준의 연결망 형성과 확산에서는 기대이익 공유와 같은 경제적 유인이 중요하게 기능함을 알 수 있었다. 조직수준의 부패 체제화에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조직 내부의 압력행사를 통한 내부고발자 배척과 부패에 대한 관용으로 원인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평가결과만을 놓고 볼 때 부패연결망 형성과 확산에서는 개인에 대한 법률적 처벌기준의 고려가 필요하며, 집단이 지대(rent)를 생성하거나 내생적으로 생성된 지대를 거래하는 것에 대한 제제가 요구되고, 조직수준에서 압력을 행사하여 외부로 비위사실 노출을 막거나 부패를 하나의 습속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2. 탐색적 연구를 통한 이론의 실용성 지향

본 연구를 통해 거래형 부패가 조직 내 체제화 되기 위한 수준을 미시·중시, 그리고 거시로 제시하고 모형과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금까지의 부패연결망 체제화에 대한 접근이 지나치게 횡단적이었으며, 단일수준만을 고려하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공공부문 부패문제를 실제 연구하고, 이를 중요하게 관리하는 국가사정기관의 소속 구성원(감사직렬, 검찰, 경찰)들과 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의 소속구성원(국회직렬: 국회보좌관, 입법조사관)들, 그리고 공공조직 소속 신분공무원(교육직렬)들로 구성된 평가그룹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평가를 통해 부패 연결망의 형성과 확산에 대한 그룹별 시각이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이라는 동일 신분영역에서 사정기관과 입법기관, 그리고 피사정기관 구성원들의 시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이론체계와 답을 유도하기 위한 결정론적 분석방법을 통해서서는 각각의 상이함을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패는 조직의 특성(내생적 지대, 행위자들의 특성, 조직정치적 요소, 조직 외부와의 관계, 업무특성 등)을 통해 재생산되는 성향이 강하며, 그 가변성이 상당하다. 즉, 조직의 특성에 따라 부패가 매우 다양한 각도로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통제논리를 모든 조직에 대입시킬 경우 성공가능성이 높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다시 통제기관과 전략의 개발에 있어서도 어려움으로 작용하는데 본 연구의 접근은 이론을 보다 유연하게 형성하고, 이를 현실의 메커니즘과 가장 근접한 시스템 모

델로 전환하여 수리적 평가 및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복잡하고 고도화된 사회의 진화적 부패형태를 이해하고, 그 메커니즘을 진단적으로 탐색/발견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한 이론과 모형을 실제에서 얼마만큼의 활용과 실용성을 높일 것인가이다. 부패의 경우 특히, 조직 및 사회구조 내에 체제화를 지향하는 거래형 부패의 경우는 관련집단, 조직, 조직의 지대(rent)크기, 연결망의 특성, 그리고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성격의 연결망이 생성되고 유지된다. 이는 조직과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부에서 쉽게 접근이 불가하며, 조직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즉, 문제에 대한 진단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진단방식뿐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수리적 모형으로 전환 시켜야 실제통제기제 개발을 위한 문제의 상태진단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방법론의 메커니즘이 구현해 낼 수 있어야 하며, 이론과 모형이 방법론의 메커니즘 변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¹¹⁾

만일 이 부분에서 최소한의 결합이 불가할 경우 실제현상과는 전혀 상이한 방향과 결과가 유도된다. 물론 이 경우 개발된 통제기제와 전략은 문제해결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문제의 메커니즘을 고려한 진단과 수리적 평가를 통해 조직 내부 및 외부 사정기관에서는 부패연결망의 형성과 확산에 대한 통제 노력과 비용을 얼마만큼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얼마동안 투입할지를 예측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단적 접근과 탐색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며, DEMATEL 방식을 통해 부패연결망의 형성과 확산에 대한 조직시스템 내부의 핵심기제를 찾아내고 가시화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한국의 경우 부패문제가 사회구조 내에서 상당히 체제화 되어 있는 상태이며, 각 조직 또는 사회영역과 중요하게 연계되고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기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처럼 의미 있는 접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주제 자체가 매우 민감하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가자 선정과 응답의 유도 등이 쉽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 평가자 그룹 선정에서 경력과 같은 기준이 다소 편향된 점과 공공부문의 부패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인력들이 배제된 점 역시 한계로 볼 수 있다.

11) 예를 들어, 문제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변동이 예상되고 실제 관측되는 중단적 접근이 필요한 연구에서 고정시점의 횡단적 접근을 적용할 경우 연구의 효율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고문헌

- 강근복. (2002). 「정책분석론」. 서울: 대영문화사.
- 강정석. (2000). 「행정절차와 부패」. 한국행정 연구원.
- 김영중. (1996). 「부패학 : 원인과 대책」. 서울: 승실대출판부
- 김용학. (2003). 「사회 구조와 행위: 거시적 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찾아서」. 나남출판.
- 김우식. (2001). 구조와 전략의 쌍대성: 연결망 구조와 통제 행위의 한 연결방식. 「한국사회학」. 35(5): 63-90.
- _____. (2002). 구조적 신호 읽기: 연결망 구조와 규칙위반 행위의 조응 방식. 「한국사회학」. 36(6): 57-82.
- 김해동·윤태범. (1994). 「관료부패와 통제」, 서울: 집문당
- 박세일. (2000). 「법경제학」. 박영사.
- 백완기 외. (2000). 공직부패에 대한 연결망 이론적 접근. 「한국행정학회보」. Vol.34, No.2.
- 손동원. (2005). 「사회 네트워크 분석」. 경문사: 서울.
- 아담 스미스. (1996). 「도덕감정론」. 서울: 비봉.
- 양운철. (1995). 「렌트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서울: 세종연구소.
- 윤종설·김정해. (2004). 인사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신고자 보호방안. 「한국행정학회보」, 38(2).
- 이정섭. (2005). AHP 기법을 이용한 기업부패지수 측정과 개발. 「한국부패학회보」, 10(2).
- 임성범. (2014).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체제적 부패 연구.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15(4).
- 전수일. (1996). 「관료부패론」. 서울: 경세원.
- 정태석. (1998). 「구조와 행위 및 거시와 미시의 교차연계 방법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 제레미 리프킨. (2001). 「소유의 종말」. 서울: 민음사
- 하태권. (1999). 공직부패를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에 관한 연구. 「공직부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한국 행정학회 1999년도 특별세미나 논문집: 51-72.
- 한승미. (1998).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성과 부패구조-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경영연구」. 35권 2호:263-293.
- Aldrich, Howard., and David A. Whetten. (1981). *Organization-Sets, and Networks: Making The Most of Simplicity*. Handbook of Organizational Desig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386-404.
- Backer, R. F., Michales, R. M. and Preston, E. S. (1975). *Public Policy Development*, N.Y.: John Wiley & Sons.
- Barker III, V. L. & Mone M. A. (1994). Retrenchment: Cause Of Turnaround or Consequence of Declin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5 (5):395-405.
- Becker, Gary S. (1968).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76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69(March/April).
- Blau, P. M. (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Transaction Publishers. Borgatti, S. P., and Everett, M.G.(1992). The Notion of position In Social Network Analysis. In

- Marsden, P.(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92. London: Basil Blackwell.
- Browning, C. R., Dietz, R, & Feinberg, S. L.. (2000). Negative Social Capital and Urban Crime: A Negotiated Coexistence Perspective. November, 2000 *URAI Working Paper* No. 00-07.
- Breiger. R. L. (1974), The duality of persons and groups, *Social Forces*, 53:181-190.
- Burt, Ronald S.. (1982). *Structural Hole: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rtier-Bresson, J. (1997). Corruption networks, transaction security and illegal social exchange. *Political Studies*, 45(3), 463-476.
- Cheloukhine, S. and J. King. (2007). Corruption networks as a sphere of investment activities in modern Russia.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40(1): 107-122.
- Chen, K. (2007). *Path Dependency, Corruption, and Central-local Relations in China's Reform Era*. Retrieved from https://editorialexpress.com/cgi-bin/conference/download.cgi?db_name=SER_2007&paper_id=253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 94-121.
- _____. (1990). *The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rozier, Michel. (1964). *The Bureaucratic Phenomen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imaggio, P. J and Powell. W.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47-160.
- Dobovšek, B. (2004). Corruption and networks in Slovenia. V: MEŠKO, Gorazd (ur.), PAGON, Milan (ur.), DOBOVŠEK, Bojan (ur.). Policing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Dilemmas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Ljubljana: Faculty of Criminal Justice
- Dowding, Keith and Desmond King. (1995). *Introduction in Keith Dowding and Desmond King* (Eds.), Preferences, Institutions, and Rational Choice.1-19. Oxford: Clarendon Press.
- Durkheim. E. (1938). The evolution of educational thought: Lectures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econdary Education in Franc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trans. by Peter Collins.
- Easton, G., and Hakansson, H. (1996). Markets as Networks: Editorial Introd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13(5): 407-13.
- Emerson, R. E. (1962). Power-Dependence Rel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7:31-41.
- Ford, J. F., Ford, L. W., & D'amelio, A. (2008). Resistance to change: The rest of the stor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3(2).
- Forsyth, D. R. (2006). *Group Dynamics*. 4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Gardiner, J. A. (1970). *The Politics of Corrup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Gardiner, John A & Lyman, Theodore R. (1970)., *Decisions for Sale: Corruption and Reform in Land-Use and Building Regulat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Gilligan, C. (1983).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Gregory, R. J. (1999). Social Capital Theory and Administrative Reform: Maintaining Ethical Probity in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ve Review*, 59(1).
- Gulati, R and Gargiulo, M. (1999). Where Do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Come From?.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4(5): 1439-1493.
- Hegtveldt, Karen A., Elaine A. Thompson & Karen S. Cook. (1993). Power And Equity: What Counts in Attributions for Exchange Outcomes ?.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6:100-119.
- Herrera, A., and Rodriguez, P. (2003). Bribery and the nature of corruption. Working paper, Darden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Virginia.
- Hessami, Z. (2010). Corruption and the Composition of Public Expenditures: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Retrieved from <http://mpa.ub.uni-muenchen.de/25945/>.
- Hirshleifer, J. (1994). The Dark Side of Force. Western Economic Association International 1993 Presidential Address.
- Kandel, E. and E. P. Lazear. (1992). Peer pressure and partnership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4): 801-817.
- Kirlin, John J. (2001). Big questions for a Significant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Mar/Apr 2001. Vol. 61, Iss. 2: P. 140
- Klitgaard, Robert. (1988). *Controlling Corruption*.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rch, F., Sydow, J. and Provan, K. G. (2006), Cliques within Clusters: Multi-dimensional Network Integration and Innovation Activities. Paper presented at the 22nd EGOS Colloquium, July 6-8, 2006, Bergen, Norway.
- Nielsen, R. P. (2003). "Corruption Networks and Implications For Ethical Corruption Reform". *Journal of Business Ethics* 42(2): 125-149.
-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ou, J. J. H., Tzeng, G. H. ,& Han-Chun Chang. (2007). Airline safety measurement using a hybrid model. *Journal of Air Transport Management*. 13(4): 243-249.
- Mills, M. and Saward M. (1994). All Every Well In Practice, But What about The Theory, in P. Dunleavy & J. Stanyer(Eds) *Contemporary Political Studies* 1994, 1.
- Murphy, K. M., Shleifer, A., & Vishny, W. (1993). Why is rent-seeking so costly to growt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3(2):409-414.
- North, Douglass C. (1998). *Economic Performance Through Time*. in Mary C. Brinton and Victor Nee(eds.), *The New Institutionalism in Sociology*. 247-57.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Portes, Alejandro and Landolt, P. (1996). The downside of social capital, *The American Prospect*, 26 (May-June):18-22
- Portes, A and Sensenbrenner, J. (1993).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notes on the social

-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 1320 - 50.
- Powell, W. W, Koput, K. W and Smith-Doerr, L. (1996).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and the Locus of Innovation: Networks of Learning in Biotechnolog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41, No. 1: 116-145.
- Pugh D. S, Hickson. D. J and Hinings. C. R. (1983). *Writers on organizations*, 3/e Harmondsworth: Penguin.
- Ritzer. G. (2006). 사회학이론. 김왕배(역). 서울: 한울출판사: *Sociological Theory*, 5th edition, McGraw-Hill.
- Russo. J. J. (2003). What If the Customer Isn't Right?. *Public Management*. 85,(5).
- Scott, John. P. (2000).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2nd Ed. Newberry Park, CA: Sage publication.
- Shieh, J. I., Wu, H. H., & Huang, K. K. (2010). A DEMATEL method in identifying key success factors of hospital service quality. *Knowledge-Based System*, 30(2), 130-141
- Shepsle, Kenneth A. (1989). Studying Institutions: Some Lessons from The Rational Choice Approach."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1(2):131-47.
- Shleifer, A., & Vishny, R. W. (1993). Corrup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599-617.
- Stefes, C. H. (2007). Measuring, Conceptualizing, and Fighting Systemic Corruption: Evidence from Post-Soviet Countries. *Perspectives on Global Issues*. 2(1).
- _____. (2008). Governance, the State, and Systemic Corruption: Armenia and Georgia in Comparison. *Caucasian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2(2).
- Sumrit, D., & Anuntavoranich, P. (2013). Using DEMATEL method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evaluation factors in Thai technology-based firms, *International Transaction Journal of Engineering Management*, 4(2), 81-103.
- Thibaut, J. W. and Kelley, H. H. (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Wiley.
- Tzeng, G. H., C. H. Chiang, and C. W., Li. (2007). Evaluating intertwined effects In e-learning programs: A novel hybrid MCDM model based on factor analysis and DEMATEL.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32(4): 1028-1044.
- Uzzi. B. (1999). Embeddedness in the Making of Financial Capital: How Social Relations and Networks Benefit Firms Seeking Financ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4): 481-505.
- Vandenberg, Paul. (2002). North's Institutionalism and The Prospect of Combining Theoretical approache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6(2):217-35.
- Warren, M. E. (2006). "Political Corruption as Duplicitous Exclusion."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4(04): 803-807.
- Wasserman, S. and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del, Janine R. (1996). Clique-Run Organizations and U.S. Economic Aid: An institutional Analysis, Demokratizatsiya: *The Journal of Post Soviet Expansion*, 4(4).

Yang, Y. P., Shieh, H. M., Leu, J. D., & Tzeng, G. H. (2008). A novel hybrid MCDM model combined with DEMATEL and ANP with ap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peration Research*, 5(3), 160-168.

투고일자 : 2015. 02. 06

게재일자 : 2015. 03. 20

<국문초록>

공공조직의 부패연결망 형성 및 확산요인 발견

- DEMATEL법을 활용한 전문가 평가를 중심으로 -

임성범(단국대) · 김경태(단국대)

최근의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부패가 조직화되고, 구조화되어 있다고 한다. 즉, 이는 체계적 부패(systemic corruption)를 의미한다. 이 유형의 부패는 많은 수의 비정형화된 연결망을 통해 조직 또는 사회구조에서 그것의 위세(power)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 조직 또는 사회구조 내에서 그들은 서로가 결합하고 거래관계를 형성하며, 이것 자체가 공공부문의 부패를 체제화 하는데 핵심기제로 기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수의 연구들만이 부패연결망(corruption network)을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핵심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전의 많은 연구들은 부패통제에 대한 접근방법과 전략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패연결망은 형성과 확산이 매우 복잡한 작동기제에 의해 이행되므로 먼저 통제논리의 발견보다 문제본질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저자는 부패연결망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행위 통합모델 제시를 위한 학제 간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수행하였다.

공공부문 부패연결망의 형성과 확산에 대한 이론의 정량적 테스트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DEMATEL(Decision Making Trial and Evaluation Laboratory) 방법을 적용하였다. 부패연결망을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핵심요인들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주제어: 부패연결망, 체계적 부패, 비정형 연결망, 학제 간 접근, DEMATEL